

연중 제24주일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기도서 434 면 (C해)
제1독서: 출애 32,7-11, 13-14
제2독서: 디모전 1, 12-17
복음: 루가 15, 1-22



우리의 구원

□ 강론

문 정 현 신부

사람은 죄인에 대해서 보다 의인에 대해서 더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홀로 남게 된다. 대체로 흉악범은 전과자들이다. 뉘우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래 보았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여 도로 흉악범이 되고 만다. 이런 현상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치적 '꼴통'도 마찬가지다 한 번 체제 반대자로 낙인이 찍히면 출국도, 취직도 못하니 꼴통이 되는 수밖에 없다. 홀로 있는 자가 되고 만다. 하늘 밑에 의인은 없다. 혹자는 종교적 수양으로 닦여진 깨끗한 듯한 양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확신으로 산다. 그러나 그의 성덕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비길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이웃 형제로부터 기대되어야 한다. 홀로 남아있는 그를 찾아 함께 하여줌으로써 홀로 있던 그와 함께 구원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교회 구성원 모두가 그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안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홀로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할 수 없고 쫓아가 그를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통해 목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였다. 들림없이 예수의 시대에도 보잘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길을 잃고 홀로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했어야 할터인데 그렇지 못하여 그 공동체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오늘 복음의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즉 아무도 위태롭게 된 형제들을 구하지 않은 데에 대한 반성이 확실한 것이다.

100여년 동안 박해 속에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순교하여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자녀들 노약자들은 회장의 집에서, 다른 교우집에서 한 형제처럼 지냈고 그들의 의식을 돌보아 주었다. 홀로 있는 자를 찾아가 데려와 함께 하였다.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이다. 이러한 직무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에 있는 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의 일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직자는 자기 소관 여러 공동체의 이 책임을 이행하는데 전체의 중심이요, 풀타임 멤버로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직분에 불과하다.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 쫓아가서 길을 잃을 위험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을 구하도록 촉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행동하는 이는 곧 평신도이다. 변천하는 시대에 사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모든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배워야 한다. (중앙 주임신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카인과 하느님 야훼 사이에 대강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간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인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겹 겹로 벌을 내리리라." (창세기 4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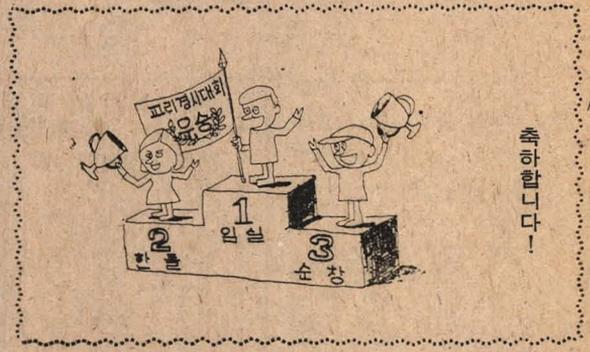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최초의 범죄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카인의 뻔뻔스러운 대답,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인간에게서 따돌림 받는 두려움에 떠는 카인, 응징을 하시면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것들이다.

딱 잡아떼며 오리발을 내미는 인간들의 뻔뻔스러움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지른 잘못에 가슴을 떠는 뉘우침은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특히 하느님의 큰 뜻,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듣는 사람은 더욱 만나기가 어렵다.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몇 사람쯤 없애버리는 일을 서슴없이 해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특히 힘있고 배웠다는 사람들, 가졌다는 사람들이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제일 큰 문제이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제일 큰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며 가슴아파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자는 카인처럼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 교리 해설

미사예물이란?

가톨릭에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기도는 미사성제이다. 미사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므로 가장 숭고한 제사이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사의 의미가 부여 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미사성제를 바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미사값'이나 '미사전'이라 하지 않고 '미사예물'이라고 한다. 그것은 돈으로 미사의 은혜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사예물의 유래는 이렇다.

옛날 초대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할 때 각자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제단에 바쳤다. 사제는 그 제물을 정리하여 미사에 필요한 양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사제의 생활비로 사용했었다.

그때에 제단에서 제물을 정리하게 되면 손에 무엇이든 묻기 때문에 제물준비를 다하고는 사제는 손을 씻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래되어 사제는 제물봉헌을 할 때 손을 씻는다. 오늘날 뜻은 손에 무엇이 묻어서가 아니라 죄를 씻고 깨끗한 손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친다는 뜻이 되었다.

이렇게 제물을 직접 성당에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해서 그 다음에는 일정금액을 바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미사예물의 유래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미사'나 또는 죽은 영혼을 위한 '위령미사'를 바치고 싶으면 봉투에 미사의 지향을 써서 사제에게 바친다.

흔히 미사예물의 액수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미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흥정을 할 수 없고 성의껏 예물을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막연히 '성의껏'이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해 놓았다. 그 기준은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사제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정도의 액수를 기준으로 미사예물을 바치면 된다.

나비의 혁명

윤 인 상(시문)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기 위하여,
이 악물어 아픔을 참는
작은 소망의 생명들.

그것이 주는 의미는
고치 속의 애벌레.

날기 위해 견디는

그 좁음과 어둠의 답답함.

벌레의 성숙이었다.

나비의 날개였었다.

비명이 있어도 좋았다.

울음이 나와도 울음이 나와도

그 눈물 위해 두 손 모음이

지난 날에 대한 반란이었다.

고통의 혁명이었다.

1983. 7. 5일 작: 일원한 저 이틀째 되는 날에

그 어느 날 밤 당신께

이 수산나(정경)

홀어진 여러 갈래의 도세혈관 속에서

각기 다른 정이 넘실거린다.

시야를 어지럽히는 무수한 욕망의 조각들.

칠흙처럼 검은 어두움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그곳에

서럽도록 진한 고독이 전신을 휘감아

어느곳에서,

누구에게도 나를 열지 않습니다.

나를 잉태하신 당신에게까지도,

그러나

보이지 않으려는 긴장 속으로

아프게 파고드는 말씀의 무리무리

그리고 그곳에 새벽 안개처럼

드러내시는 당신의 모습

어두움이 지나면 새벽이 소리없이 오듯이

당신 또한 살면서 내 안에 자리하시면

모든 번뇌는 일순간 사라지고

다시금

눈을 감고 작으나마 한 가지 한 가지씩

가슴을 비워내는 작업을 서두릅니다.

분명

그곳엔 걸러진 빛의 조각들로

무한히 채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추석 합동 위령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할

시다.

여러분이 바치는 미사예물은 전액 성지

개발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유럽 성지순례 출발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일 관 광

☎ 6-666~8
조(안토니오) 선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립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제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
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교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 배 드로 · 김 안 나

□마춤 · 대며□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폐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 6951

정 인 기(누지노)

군산

째즈 · 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군산 동국교 옆,

동아약방 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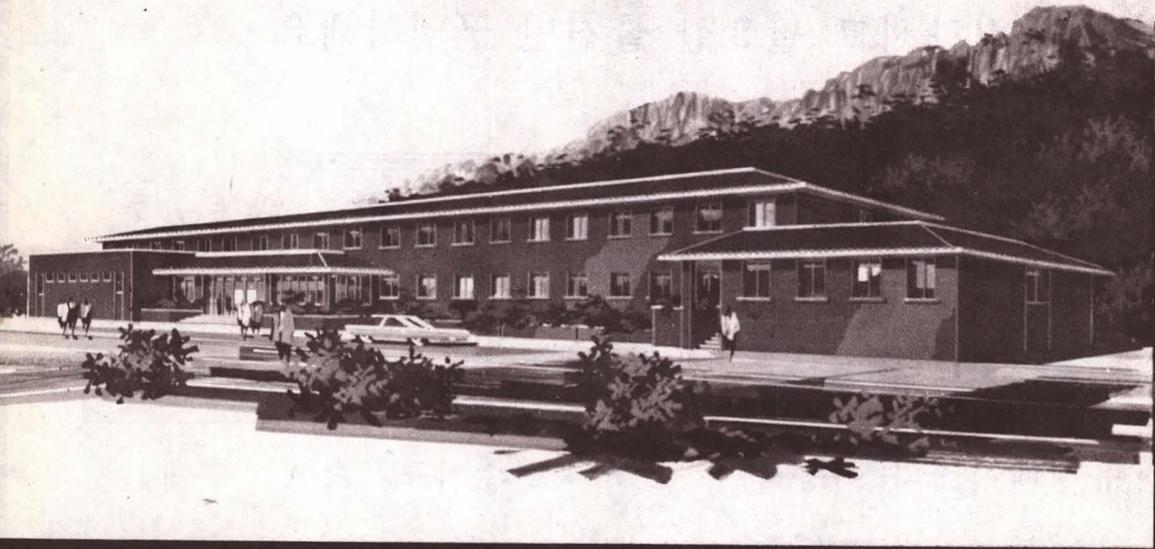
☎ ②1610

이 크리스티나(정란)

치명자산 피정의집 건립을 위한 바자회

천주교 전주교구

장날



행운 상품

1 등 / 오토바이(125cc)	1 명
2 등 / 칼라TV	1 명
3 등 / 세탁기	2 명
4 등 / 자전거	3 명
5 등 / 우 산	70 명
6 등 / 세수비누	150 명

기간 : 1983년 9월 25일~29일

장소 : 가 톨 릭 센 타

주최 : 천주교200주년기념사업전주교구위원회

협찬 : 신 용 협 동 조 합

가정에서 사철내내 필요한 물건들

바
자
회

2 시장보다 싼 가격

3 좋은 제품

천주교 「피정의 집」 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장이 섭니다.
오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세요.

판매상품 안내

1. 의류 및 생필품

- 유명메이커의 아동복 · 숙녀복, 가방, 구두, 우산, 시계, 담요....

2. 식 료 품

- 각종건어물, 토종꿀

3. 주 방 기 구

- 각종 주방용기

4. 가 구 및 장 식 품

- 백송가구, 초자, 수예, 칠기, 도자기

5. 레 저 용 품

- 각종 등산기구

6. 행 운 권 추 첨

- 1983년 9월 29일 오후 4시

□ 「피정의 집」 건립 기금을 위한

천주교 전주교구 장날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교 선열들의 일을 본받고자 전주교구민의 숙원사업인 「피정의 집」 건립기금을 위한 전주교구 장날을 예고합니다. 일반 시장 가격보다 싸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운권을 판매합니다.

일시: 9월 25일~29일(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장소: 가톨릭 센터 ※ 교구 신앙대회가 있는 25일은 전주 실내 체육관에 장이 섭니다.

품목: 의류 및 생필품(유명 메이커), 식료품, 가구 및 장식품, 레저용품, 주방기구 판매봉사: 수녀님, 레지오 단원(예정)

행운권: 1매 500원(11일부터 위탁 판매할 예정)

행운상품: 오토바이125cc 1대, 칼라TV1대, 세탁기2대, 자전거3대, 우산70개 등

□ 소년 꾸리아 성지순례 및 옥외행사, Pr간부 연수회

성지순례 및 옥외행사 일 시: 9월 11일 오전 11시

집결지: 전주 중앙성당 성모상 앞 대상: 소년 Pr단원

준비물: 목주, 결실, 회비 300원

소년 Pr간부 연수회 일 시: 9월 25일 9시30분

장 소: 가톨릭 센터 대상: 각 소년 Pr간부 4명 전원

□ 이런 편지를 받지 않으셨는지요?

어느 교우분이 이상한 편지를 받고서 문의해 오셨습니다. 「평화의 편지」 「메레사 편지」 「루비나 편지」 등으로 불리는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시리라 생각하여 숲정이란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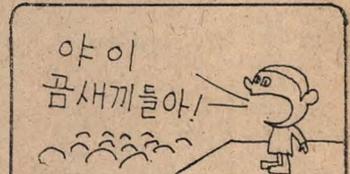
편지의 내용을 보면, 편지를 받은 날부터 9일 동안 주의 기도, 성모송을 바치면 14일째 되는 날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든가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4명에게 보내라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편지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며 일종의 미신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이런 편지를 받으신 교우분들은 부담감을 갖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무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 최 기식 신부님의 감사 인사

8·15 특사로 출감되신 최 기식 신부님께서 교구 내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기도와 희생,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다. 신부님은 수감되어 계시는 동안 신자들의 기도에서 힘을 얻고 사셨다고 하시며 그 기도는 신부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로 생각되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셨다. 신부님은 그동안 끼쳐드린 심례에 죄송함을 표하셨고 늘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보속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신다고 하셨다.

요십이 (527) 김병오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차본(체르니, 쉰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복은행 노송동지점 앞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킹검 로가디스 소사이어터

위크엔드 간이복

런던포그 세계적인코트의명품

뉴 맨

체리저니 언더블

선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4451 주위 유희리아나

가나혼인(結婚) 상담소

(관허 제13호)

◇연락처
 ☎ 72-3925(성모병원3층)
 ☎ 72-3105(천사의 집)
 상담자: 김 모 세

감사합니다

연령 이세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성(야고보)
 가족 일동 드림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축! 견진: 남원(11일)
 2.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주현동-11일~12일, 창인동-13일~14일, 익산공소-15일, 여산-16일, 화산-17일, 용안-18일, 함열-19일
 3. 200주년 기념 '83년 교구 신앙대회: 25일, 장소-전주 실내 체육관
 4. 200주년 3차 사목회의: 28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터
 5. M.B.W 교육: 30일~10월 3일, 선착순 28명, 접수처-교육국
- 숭정이 각 분당 공지사항(25일자): 21일이 추석인 관계로 17일까지 원고와 대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②1711~3
 주임 신부 문철은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협

1. 금암동 신축 성당 미사: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 200주년 기념 피정의 집 건립 위한 부채판매
 3. 축! 영세: 18일 10시 30분 미사중
 4. 주석 위령미사: 교회모임 오전 11시
본당 합동 위령미사-오전 6시, 오후 7시
 5. 구역방문: 3·5·10반
 6. 중·고등 학생회 성지순례: 18일, 화산·여산·고산
 7.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9월 6일까지, 478,313단
- 지난주 봉헌금: 1,086,115원 교무금: 494,0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반장님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회의실)
 3. 할머니 모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성심회 율례회: 13일 오후 2시(본당 회의실)
 5. 주석합동 위령미사: 연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6. 울뜨레야: 13일 오후 8시
 7. 꾸리아: 11일 오후 2시
 8. 차주전례: 독서-①박경환 ②김배근
- 지난주 봉헌금: 275,125원 교무금: 182,500원

(노송동)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훈서
 사도 회장 이춘재

1. 축! 견진성사: 특별교리 26일 부터, 견진 신청은 18일까지 사무실에 접수(신청서 사무실에 있음)
2. 주석 합동 위령미사: 선영들을 위해 미사봉헌합니다
3.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자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구역모임 보고서 제출: 각 구역장님들은 다음주까지
5. 청년회 모임: 주 2회-매주 <수> 저녁 8시와
매주 <일> 저녁 7시,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숭정이)

전화 ②7366
 주·유 ②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길

1. 사도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레지오 목회행사: 고산·칠호·성지
일시-15일 9시 출발, 차비-2천원
 4. 영세식: 10월 1일 17:00(참고 9월 30일 20:00)
유아영세식: 10월 1일 15:00
 5. 구역모임: 13일-진북2동 8구(20:30), 14일-서신3구(20:30 2차모임), 16일-진북2동 2구(14:00 2차모임)·진북2동 4구(20:30)·서신1구(20:30 2차모임) ※ 애령회 회자금 이상선제(10만원) 감사
 6.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노재두·박병열
기도-이귀례·김남곤
- 지난주 봉헌금: 171,700원 교무금: 309,500원
200주년 헌금: 245,600원

(덕진)

신부(3) 2182
 수녀(72) 1222
 사무(72) 6259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L.M 꾸리아 회의(오후 2시)
 2. 금주 구역 형제회(반모임) 개최 일정
12일: 덕진 13반-한복진씨 집에서, 14반-정현정, 15반-유일봉, 금암 5반-김정례
13일: 덕진 16반-김원, 17반-엄보임, 송천 1반-소병을, 금암 6반-최덕례
14일: 송천 2반-방윤자, 송천3반-나영규, 송천4반-김용수, 금암7반-유제상, 송천5반-문선영
16일: 팔복2반-김태원, 팔복3반-김백호, 팔복4반-김은식, 금암8반-노준영
 3. 신심 양양을 위한 1일(절야) 피정 일시: 17일 저녁 10시~18일 오전 6시, 주제-하나되게 하소서, 대상-30세~50세 미만의 남녀 교우
 4. 단체 임원 선임: 청년 성가대: 단장-고광빈, 부단장-안희영, 총무-조태민
중고 지도자: 회장-서재성, 총무-김진례
 5. 다음주 모임: 반석회·청년회·성모회
 6. 주부 영세자 특별교리: 11일~18일, 24일 영세 예정
 7. 주석 합동 위령미사: 21일 오전 6시,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483,500원 교무금: 945,500원

(전동)

신부 ②6208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범엽
 보좌 신부 박찬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후 2시
 3. 성화회 꼬미시울: 다음주
 4. 200주년 시성시복 9일기도: 12일~24일 새벽 5시30분-18일, 21일, 22일은 제외(장소-치명자산)
 5. 영세예비자 집중교리: 12일~17일, 저녁미사 후 영세식-18일
 6. 조상을 위한 주석합동 위령미사: 사무실에 접수바람
 7. 주일학교 교장 이동: 이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홍 수고하시겠습니까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최정식 ②최종민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영희 ②백종품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수 ②이영철
- 지난주 봉헌금: 1,136,800원 교무금: 704,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로

1. 섬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12일 어머니 미사후
 3. 주석 합동 위령미사: 21일 오전 10시·새벽 5시30분 먼저 가신 선영들을 위해 정성드려 미사 봉헌합니다
 4. 수녀원 신축헌금: 육경수(2만원), 최원병(1만5천원) 전정숙·곽윤상(각 1만원), 김성순(5천원) 누계-5,153,500원
 5. 성심자가 현양축일: 14일
 6.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8시를 7시 30분으로
 7.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김성원 ②유기순
주석 위령미사 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조성호 ②이경호
- 지난주 봉헌금: 442,600원 200주년 헌금: 309,97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황희상

1. 배론성지 순례: 회비-5천원, 중식 개인 지참
18일 주일까지 회마자는 성모회장께 신청 바람
 2. 사도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있음
 3. 성지순례 중이신 분당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200주년 기념 사업 부채: 사무실에서 판매하오니
아직 구입 못한분은 1가구당 1개 이상 구입 바람
 5. 교구 신앙대회: 본당 신자들은 전가족 동반 참석합니다
 6. 교무금: 미납된 신자들은 속히 완납합니다
※ 수녀원 축매 공사비 등 분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200주년 특별헌금: 396,555원 교무금: 108,000원